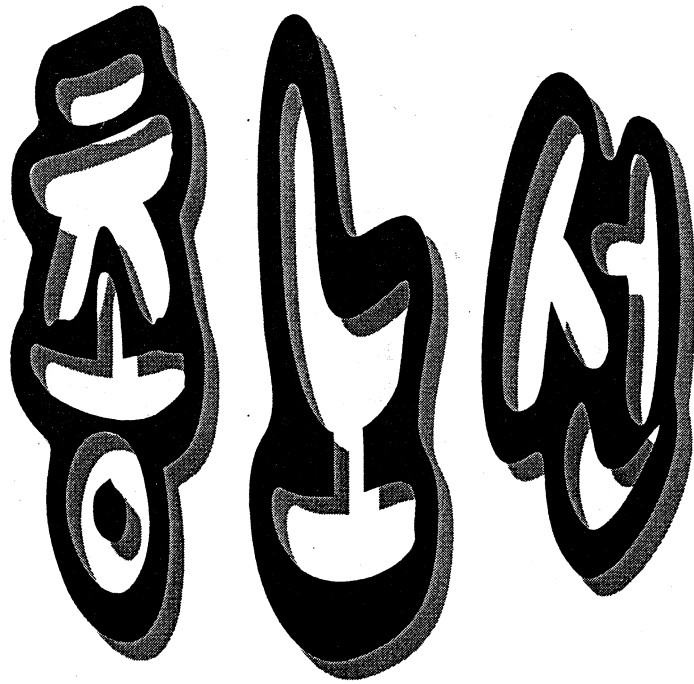


민족영대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드리는 즐거움: 총여학생회 정책국
받는 기쁨: 각 단위 여학생회, 학생회(토론용)

- 내림차순 -

▣ 총노선이란???

▣ 총여학생회는 이런 조직입니다.

▣ 지난 총여학생회의 평가

▣ 전체정세

▣ 여성정세

▣ 2003년 총기치 및 해설

▣ 기조와 목표

▣ 조직 · 사상과제

▣ 대중투쟁과제

▣ 대중과제

▣ 시기별 사업 계획

▣ 총여의 체계 및 지위 역할

▣ 참고자료

(이라크 전쟁에 관한 10문10답)

||| 총노선이란 ??? |||

총노선이라 하면 의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새해가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기에 우리 총여학생회 역시 한해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좀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바로 이것이 총노선인 것입니다.

막연히 목표와 계획을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학내문제에서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사호상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활동지점들을 함께 합의하고 목표와 우리들의 일년 상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나갈 때에 간부들의 활동 하나 하나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설정되고 고민되어지기는 무척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업계획은 내어오면서 그 사업계획이 단순히 시기별 행사의 계획, 집행의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총노선이 단지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우리들의 커다란 의지를 담는 그릇이기에 늘 학우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총노선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

총여학생회는 9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그 사업과 투쟁의 주체를 여학우 대중으로 삼으며 여학우들의 삶의 주인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사는데 있어 제기 되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학우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으로써 헤쳐나가는 조직인 것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는 과 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드높일 것에 대해, 투쟁과 사업에 있어 지도 견인해내는 구실입니다.

||| 지난 총여학생회의 평가 |||

▶평가에 앞서

지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펼쳐갈 사업과 투쟁에 대한 방향과 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만 설자리가 좁혀져가고 있는 여학생회의 지금의 현실 속에 2003년 민족 영대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총노선은 총여학생회가 가져가야 할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여학생회의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의 고민의 첫출발이었으면 합니다.

기간의 총여학생회 활동들을 잘 평가하여 그 속에서의 성과와 한계점들을 찾아내어 성과는 계승 발전시키고, 한계점들은 명확히 혁신해 내어 야지만 할 것입니다.

▶ 17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평가

전여대협 의장단위 :

학교일꾼들의 여학운동이나 전여대협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작은일꾼의 총여학생회가 회장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총노선 수립 :

주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하였다.

총노선의 수립시기가 많이 늦어짐으로 해서 단위의 흐름 역시 많이 늦어졌다.

전여대회를 통하여 몇몇 간부만이 아니라 여학일꾼들과 함께 합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높히 평가된다.

수립과정에서 여학우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

달별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실질적인 세부내용의 공유가 어려웠다.

총여학생회가 일년의 좌표로 안고 나아가고자 하였다.

반면 단위 여학생회에서 총노선을 중심에 두고 가는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전교여대생대표자회의 :

전여대회로 모범적 정형화된 틀을 마련해줬다.

전여대회를 통한 회칙 재개정으로 과여학생회(부)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줬다.

여학일꾼 스스로 자기확신을 심어주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모든학우에게 알려내고 내용을 가져나가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총여학생회 만이 아닌 모든 여학일꾼이 함께 하는 총노선수립 과정이 있어 높히 평가된다.

여학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업준비가 총여일꾼 부족으로 단대여학생회일꾼들의 실무부담이 커져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여성문화제 :

전여대회에서 부터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흐름을 가져나가고자 하였다.

여학생휴게실 실태조사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민을 가져나갔다.

실질적인 흐름이 만들어져가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 일꾼부족, 주체결여. . .

여성단체와의 연대로 함께 가져나가고자 하였으나 사업으로만 역이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남았다,

학우들에게 알려내고(동영상) 같이 만들어가고자(자봉단)많은 노력이 있었다.

과여학생회(부)의 참여가 낮고, 모든학우가 함께 가져나가고자 하는 간담회나 대의체계의 흐름이 부족하였다.

단대여학생회가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데에 단위마다의 차이가 컸다.

과여학생회(부)장 건설:

1년간 지속적인 고민의 끈을 가져나갔다.

간담회 등을 통한 여학생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을 위한 과정이 높게 평가된다.

금강산 모꼬지, 한총련 대의원대회 등을 통한 과여회(부)장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전여대회를 통한 회직 재개정으로 건설하고 활동하는 실질적인 토대 마련이 되었다.

건설하고 여학생회 사업에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흐름이 높게 평가되어진다.

과에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높여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였다.

과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사업이 부족하였다.

금강산 모꼬지를 통한 참여를 끌어내고, 통일의 길에 함께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

농민학생연대활동 :

전반적으로 연대의 관점을 잡아나가고 함께하는 활동이 부진하였다.

연대의 관점보다 사업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여성농민반 활동을 모범적으로 해냄으로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여학일꾼/주체자들의 사전학습과 토론이 요구되어진다.

여성농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준비가 높게 평가된다,

여학일꾼 수련회 :

여학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과정이 높게 평가된다.

기층단위일꾼들의 참여부족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여학운동을 잘 가져나가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제출되었다.

일꾼들이 서로에게 많은 힘을 얻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대의체계 :

총여학생회의 재개정으로 여학생위원장이 함께 함으로서 미여학생회 단위와 함께 가져나갈 수 있었다.

하반기로 들면서 중앙운영위원회가 잘 성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안건이 힘있게 가져나가는데이 대한 부족함이 있었지만, 함께 하고자하는 노력이 컸다.

단대여학생회는 단위마다 편차가 컸으나 과여부장과 함께 회의를 가져나가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

단대여학생회의 꾸준한 회의체계가 지속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남는다.

여학생회 사업이 중앙운영위원회등 대의체계를 통한 공유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였다.

총평 : 많지 않은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나간 한해였다.

그 과정속에 일꾼들의 자리매김과 고민이 풍부해진것도 사실이나, 총여학생회의 집행일꾼 부족으로 대표자의 실무가 가중되었고, 단위 지도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전여대회 성사, 과여학생부 사업 등은 전여대협 의장단위로서 모범을 창출한 성과로 높게 평가되어지나 전여대협 의장단위라는 책임과 공지를 늘 자각하고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못한 것이 지적된다.

화장실 신문·이동 여학생회 등 일상적으로 여학우들과 함께하기 위한 과정, 과여부장과

사업을 함께 가져나가고자 했던 흐름은 무엇보다 소중한 과정이었다. 과여부장들이 그들의 기반인 과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도사업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단대 여학생회의 과여부와 함께하는 회의가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그 과정속에서 과에서의 요구와 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2003년도의 과여부를 어떻게 고민하고 건설하는가에 토대가 되었다. 힘있고 결의높게 가져나가야 할 중앙운영위원회 역시 하반기에 성사의 어려움이 많았다. 대의체계가 안정되지 않아 일꾼들이 함께 공유·합의하고 함께 모어나가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였다. 여학일꾼들의 꾸준한 사업흐름과 책임의식, 여학운동에 대한 고민이 대의체계를 통해 더욱 높이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여학일꾼들의 전문성·학습이 더욱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일꾼의 눈으로 한해를 열심히 살아갔다고 평가된다.

이후 영남대 여학운동이 걸어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든 한해였다.

||| 전체 정세 |||

얼마 전 우리는 우울한 3.1절을 보았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자주독립을 이루려던 84년전 기미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해야 하는 날, 서울 한복판 시청과 여의도에서는 10만명씩의 군중이 모여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 국가를 목이 터져라 불러대고, "주한미군철수 반대한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경찰 국가인 미국과 손 잡으라" "노무현 대통령을 붙들어 주소서"를 외쳐대는 집회 군중들을 보면서 외국 언론들은 아마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로 알고 그렇게 보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 날, 두뇌구조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보수집단과 대형교회 신도들에 의해 헌법 전문에까지 표현되어 있는 3.1 정신은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적은 인원이 모여 경찰의 폭행과 제지를 받아가며 민족자주와 반전평화를 3.1절 84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완전한 독립이 아닌 금수강산이 돌로 나뉘고, 완전한 군 통수권조차 갖고 있지 못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주권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외국 군대가 을사보호조약이래 1백년(6.25 한국전쟁이 나기 전 1년은 제외)동안 수도 한복판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놓여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는 당연히 배부른 소리가 되는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3년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슬러고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수구보수세력들을 뒤로하고 늘 꿈틀거리는 민중들의 힘으로 민중들의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힘차게 투쟁해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

■ 왜 아직도 반미냐구요?? 이전 반전 반핵도 추가해요 ■

2003년은 1994년 북·미 간에 맺었던 제네바합의 이행 완료시점입니다.

94년, 한반도의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간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 형식으로 해결하자고 이 북과 미국이 약속한 것이 바로 북·미 제네바합의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북이 전력생산을 위해 가동중인 핵 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이 북의 핵 시설 동결로 인한 전력 손실을 중유공급으로 보전해주고, 북에 대한 핵 안전 보장,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제네바 합의 덕분에 한반도는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북은 지난 몇 년간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북에 식량난보다 더 큰 어려움은 전력난이었습니다.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였지만 북미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약속을 이행해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003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경수로는 지금부터 열심히 짓는다해도 2008년이 되어도 완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금창리 핵시설을 운운하며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을 마저 완료해야하는 2003년이 다가 올 수록 이북을 '악의 축(2002년 연두교서)' 이니 '무법국가(2003년 연두교서)' 니 하면서 이북을 이 세상에 다시없는 '악'으로 규정하면서 이북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조건 힘을 앞세운 대외정책을 펼침으로 전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는 9·11 테러와 같은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부시는 자기 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외교정책에 대해서 반성할 대신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 이네 워네 하면서 더더욱 전쟁에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선포나 이북에 대한 강경 정책 또한 이런 미국의 호전적인 외교정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2003년에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양상의 본질은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자주 국가인 이북을 압살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등 평화적인 조치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북의 그 어떤 제안에도 미국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들의 의도대로 이북을 무너뜨리고, 미국 자신의 패권을 한반도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요??

2003년에 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릴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이 절대로 자신의 지배야욕을 실현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힘은 흥하고 미국의 힘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군정치를 앞세운 당당하고 주동적인 이북의 태도에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정책에 반전평화, 반미반전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전세계 애국적 민중들이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민족 자주의식으로 미국의 침략적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투쟁하고 있는 이남의 애국적인 민중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모여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이 있습니다.

춧불시위로 상징화된 최근의 반미 반전투쟁과 '반미정서'는 두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지만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대중의 민족자주의식의 표출입니다.

소파개정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양민학살진상규명투쟁, 미군기지반환투쟁, 아프칸 전쟁반대투쟁, 부시방한반대투쟁, 'F-15K무기강매반대투쟁'으로 이어지며 각계로 확산되어 온 반미반전투쟁은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청년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반미투쟁은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투쟁과 결합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을 투쟁의 중심으로 세우고, 전쟁책동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평화운동, 시민운동진영으로 까지 확산된 데 이어 '오노사건'과 '여중생살해 사건'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항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반미투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반미반전 투쟁은 세대와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북미핵공방과 관련하여 책임의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 답할 정도로 반미의식이 보편적 정서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남녀노소가 구체적인 행동전으로 나설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뒀으로써 지배세력의 이념적 토대(친미, 반공)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야!!! ■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면서 "이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검토 지시 발언은 공중파를 비롯해 주요 신문의 1면을 도배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동안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회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환영 입장을 발표했으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한총련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 해결은 구체적으로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11기 대의원 수배 불가 조치'의 형태로 4월중에 있을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사회현안으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결국 정부당국에서도 한총련 합법화의 전향적 입장을 발표하는 큰 진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범사회인 대책위 결성, 10만인 선언운동,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합법화 문화제, 각계 각종 선언 및 행동전, 정치수배 문제의 공론화 등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은 이제 '합법화 쟁취'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한총련 합법화 실현의 구체적인 경로를 상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 매진해야겠습니다. 각계 각종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한국사회 민주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 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여성계, 환경, 정치인, 시민단체, 사회 원로인사 등을 총 망라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한국사회 민주발전과 인권실현의 새로운 지표를 세워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라는 계기를 살려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는 힘은 각계층을 최대한 포괄하는 강력한 주체역량으로 범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전향적 입장 발표가 선언적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유일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한총련을 합법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냉전반공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수구보수 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총련 합법화를 쟁취하는 것은 냉전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초헌법적 억압행위가 정당화되어 왔던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수구보수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라면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적단체 한총련에 승리적 도취감만을 안겨주는 행위"라 비난했으며, 검찰 또한 "한총련이 자체적으로 강령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단체의 친북 이적성은 과거와 같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주장하는 주사파가 한총련, 노조, 전교조, 민주노동당 등에 들어가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발언으로 충격을 던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1절 대규모 우익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자유통일국민대회'라는 상설적 기구를 설립하고 "국가보안법 폐거나 한총련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을 시국선언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보수우익세력들이 단순한 반대 입장 표명을 넘어서 한총련 합법화 반대를 내걸고 오프라인 집회까지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정세

■ 교육도 이제 돈으로 사고팝니까???

최근 10여년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등록금 협상할 때 더럽게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듣기 좋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집어 보면 대학을 세계 무역시장에 내놓겠다는 말이나 진배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관하게 추진하여 온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과 교육개방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은 어쩌면 교육개방을 위한 일련의 사전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WTO에서 체결된 GATS(서비스분야에서 교역의 일반협정)는 교육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상품으로 선언하여 교육 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기업화는 GATS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 '예산축소'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교의 대발안이나 자율적인 등록금 조치는 바로 학교를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방의 근거가 되는 GATS의 내용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어 보면, 보조금(정부지원금)도 협상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보조금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개방대상 분야가 된다면 지원 여부는 협상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1년 협상 제안서에서 외국공급자에게도 고등교육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지속적인 국가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들은 이러한 보조금이 들어갈 경우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개방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이 교육을 팔아먹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각 학교에서 자구책 마련(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통한 정부나 학교의 조치들은 GATS의 규칙에 매우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협상 동향>

- WTO 도하협정에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을 서비스 분야에 포함하여 협상을 벌이기로 함
- 이에 따라 교육개방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부문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체결되면 국제법의 효력을 받게 됨.
- 2002년 7월 22일 - 7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8개국(일본, 캐나다, 중국, EC, 대만, 뉴질랜드, 호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1차 양자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
- 10월 29일 - 10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상이 앞의 8개국에 알젠틴 싱가포르, 브라질을 포함한 1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협상 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면서 정부는 외국이 요구한 협상안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더구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는 앞다투어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

를 취하고 있다.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국우수대학(원) 유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 교원임용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입법에고된 상태)

- 10월 7일 35개 교육단체가 참여하여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2003년 3월 양허안 제출 시한에 맞추어 부처별 개방안을 마련하는 일정 진행(1월 15일까지)

-대전 당시 노무현은 개혁 불가피론을 펴면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개방론의 입장을 밝힘

-현재 인수위에서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활동에 대하여 여러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현재의 교육개방 수준에서 양허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고 함.

- 그러나 양허안을 제출하면 국제법의 효력을 받게 되어 돌이킬수 없게 됨. 쌀개방이 되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 우리 정부가 낸 안은 없었음. 한칠레 무역협정이 처음.

민중생존권 투쟁

■ 농민, 노동자 이제 어디로 가나??? ■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해 온 결과, 민중들의 생존권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상시적 정리해고로 인한 일상적 고용불안,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1천만이 넘는 **신빈민층**의 형성,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생존권의 파탄, 살인적인 노점단속, 교육·건강·사회복지 등 사회적 공공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무차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민중진영은 전례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민중의 투쟁은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철도, 발전노조원들의 국가기간산업사유화-해외매각저지투쟁, 공무원노조합법화투쟁, 캐리어 사내하청, 보험모집인 노조, 건설일용직 노조 등 비정규직(불법파견,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투쟁을 시점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더욱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30만집결 농민대회와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전면적인 농민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94년 UR 협상의 타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되었습니다. 값싼 외국농산물의 무차별적 수입으로 가격폭락은 구조화되었고 농가부채는 급증하여 자살, 야반도주 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농업은 빈사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11월 WTO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시작, 2004년 쌀재협상에서 쌀개방이 전면화됨으로써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농대의원대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기층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30만 농민

대항쟁의 파고를 이어 2003년에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여성정세 |||

반가부장제

● 성폭력, 성희롱, 너희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마!! ●

반성폭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개화됩니다.

200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져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예를 들면 대학, 직장과 같이) 내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공동대응과 연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요구로 1993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성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부족하며, 친고죄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의원입법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대한 대응활동이 올해에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위원회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진행되어왔던 공동체 문화 속의 성폭력,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더 많은 대학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 호주제 너 이제 딱 걸렸어!! ●

호주제를 폐지해나가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 1년 내 폐지'라는 공약을 위시로 하여,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3월4일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호주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고 그대안으로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의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인1적제도는 미국 유럽 등 서구세력에서 채택되고 있는 호족편제로 출생과 동시에 한사람이 한 개의 호적을 갖는 제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상반기 호주제에 의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올해 내려질 전망이다.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그 위헌성에 대해서 강변해왔기 때문에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제의 폐지의 당위론이 무르익고 있는 지금, 강금실 현 법무장관이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만큼, 제도로서의 개선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위를 총선 이후에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정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며, '가족별 호적편제'와 '1인1적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며,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와 의원입법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미디어활동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된 이후,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 그 어떠한 것도 현실이라 말할 수 없다!- 성매매 ●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희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대해서 어떠한 절충의 의견도 필요없다며 일정부분 성매매에 대한 집착을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어설픈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여성부에서 이미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보완해 2003년부터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며, 여성단체 등의 여성조직이나 개별인사 등이 전국 곳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벌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는 일부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밝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재판의 국가배상 판결에 힘입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난 4월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가와 포주들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압력활동 등 입법 추진 활동이 주로 진행될 것이며,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의식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에 대한 법정소송투쟁을 진행하며 국가의 성매매 방지 책임을 묻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야할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투쟁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등 구체적 방도에 대한 모색작업은 진행중에 있지만, 2003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이 민간차원으로나,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현실을 우린 잃어 가고 있었다! ●

2003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의한 사과와 배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03년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ILO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총회 의결절차를 통해 회원국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회원국으로서 1932년에 이미 제29조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29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구속력 때문에 일본측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며 안건 상정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번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채택되면서 '2003년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협약 제29조 위반 사례를 다루기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공동선언하기로 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전례에 비취볼 때 이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사용자 그룹의 적극적 협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단결해 반대 로비를 벌이는 일본측에 의해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ILO총회에서 '위안부 의제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측 노·사·정 대표단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 대표단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가 바로 계속 추진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 자체로도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근거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ILO 총회는 매년 6월 초에 개최되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총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묻혀있었던 일제시대 '기업위안부'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위안소' 운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돼,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업위안소 위안부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여성들이여.. 이제 정치권으로... ●

지난해 6·13 총선과 12·19 대선에 이어, 2004년에 진행되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개발기구의 '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은 5.9%로 조사가능국 161개국 가운데 겨우 13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당제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법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며,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예산확대운동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예산확대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통일운동

● 여성들이 통일, 평화운동에 주체가 되자! ●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격해질 2003년도이기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많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에서부터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운동 등의 투쟁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등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해 2003년에도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SOFA개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민중의 삶

● 비정규직도 억울한데 여성이라고 차별을... ●

2003년, 이 땅의 여성은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폭력 속에서 다시금 95년 전의 여성들간의 힘찬 저항과 연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위기극복 전략은 구조조정 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든 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을 직장에서 내몰았던 구조조정의 칼바람.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와,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가계유지비용의 급증은, 여성들을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돌아온 여성을 반기는 것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인 가사일.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강제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이중부담의 강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는 가속화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몰고온 노동의 불안정화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를 통해 더욱 호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여성

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와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하 진행된 구조조정이 심화시킨 노동의 불안정화와 가족의 위기는 이러한 여성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성부의 정책방향은 여성이 구조적으로 억압, 배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면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맥락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여성의 자기능력개발 부족인양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여성정책에 있어서 기간 여성운동이 투쟁해온 정책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려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이 현재 신자유주의를 정점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여성부의 출범 이후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여성부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형수님..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

6-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정책과 이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촌의 해체를 급속하게 유도해 왔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빠져나간 농촌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은 여성농민의 전면적인 생산현장에서의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방농정이 본격화되는 90년대에는 전통적인 미작중심의 농업에서 시설채소, 과수등 상업농으로 전환되면서 더욱더 여성농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저농산물 가격은 가정경제를 유지하게 어렵게 하면서 농촌지역의 농공단지나 식당 등에 여성농민을 내몰거나 더욱더 많은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민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90년대에도 여성농민은 농가주부, 농촌여성으로 불리워지며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농민의 조건에 맞는 생산조건과 수단 마련, 농업전문인력으로서의 개발, 모성보호비용 부담 등 그 역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조건은 전혀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농민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철저히 여성이나 개별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제품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집안일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남는 시간에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값을 못 받는 농산물로 인한 소득의 부족은 결국 자가 노동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최근 여성농민이 조합의 대의원, 이사, 마을의 이장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2003년 총 기 치 |||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새 시대의 당당한 절반!! 9천 여성, 2만 학우와 함께 하는 열린 총여학생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각 부분별 남북교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가 6.15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책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그에 따라 민중들의 삶 또한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효선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행진과 월드컵응원은 우리 민중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새로운 정권의 취임에 따라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 등의 제정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여성 정세 또한 밝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적인 여성으로써 학내의 여대생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어떻게 삶의 지표를 마련해야 할까?

이젠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들의 힘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한 새 시대의 절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9천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2만 학우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며 그 길에 언제나 총여학생회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Ⅲ Ⅲ 기 조 와 목 표 Ⅲ Ⅲ Ⅲ

9천여성 2만학우들에게 늘 열려있는

총여학생회로 다가가겠습니다.

- 과여학생회에서 단대여학생회까지 기층을 탄실히하고 대의체계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 반가부장제, 반성폭력운동을 영대에서부터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갑니다.
-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활동을 강화합니다.
-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며 통일운동을 일상화, 대중화 합니다,
- 여학 학원 자주화 운동에 주력합니다.

Ⅲ Ⅲ Ⅲ 조 직 · 사 상 운 동 Ⅲ Ⅲ Ⅲ

총여학생회만 서있다고 해서 그 학교의 대중운동은 탄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운동에 대한 고민은 기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기층에서부터 고민들이 제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해 총여학생회는 87개과와의 간담회사업과 14개 단대의 간담회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여 각과에 여학생회 건설 및, 단대 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할 것입니다.

☞ 대의체계강화

과에서부터 총단위까지 보다 탄실한 체계 마련!

☞ 과 여성부 건설을 위한 87개과 간담회진행

2학기에 있을 전여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1학기동안 87개과를 모두 돌면서 과 여성부를 건설할 것을 제안! 더불어 단대 여학생회가 세워져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단대에 여학생회 건설 역시 간담회를 통해 제안!

☞여학생회, 여성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강연회진행

학우들의 문화적 소양도 높일 겸 우리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2번 정도의 대중강연회진행!

☞소모임활동의 활성화

단위별(총여 포함)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꾸려 정기적으로 함께 소모임을 진행해 나간다.

<2003년 총여 소모임 계획>

♥우리는 새내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진행하여 많은 새내기들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로 묶인 새내기들을 그저 개인 적인 연락만으로 묶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일꾼으로 의식화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내기들을 우리의 일꾼으로서 키우기 위한 하나의 후속작업으로 소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2003년 총여학생회에서는 "역사 기행"이라는 주제로 소모임을 만들어 새내기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모임 이름 : 댕이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소모임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가장 친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댕이로 했답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부족한 점 채워주는 "댕이"들의 모습 정말 예쁘겠죠??

♥소모임 주제곡 : 살다가꿈

♥1년 계획

3	마지막주 =>소모임 계획 세우기	
4	1.2주 => 소모임 홍보, 모집	
	3주 => 친해지는 기간, 소모임의 1년활동에 대해서 얘기 4주 => 조선시대 민중의 삶에 대하여 공부	
5	1주 =>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다녀오기 (9일~11일)	
	2주 => 5.18에 대해서 공부	
	3주 => 5.18 광주 순례지 답사	
	4주 => 느낀 점 발표하기	
6	1주 =>6.15에 관한 공부	
	2주 => 6.15민족통일대축전	
	3주 => 기말고사 준비	
	4주 => 6.15 대축전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보충 공부	

7	1주 => 여름농활	
	2주 =>	
	3주 =>	
	4주 =>	
8	1주 =>	
	2주 => 8.15대회	
	3주 =>	
	4주 =>	
9	1주 =>	
	2주 =>	
	3주 =>	
	4주 =>	
10	1주 =>	
	2주 =>	
	3주 => 중간고사 준비	
	4주 =>	
11	1주 =>	
	2주 =>	
	3주 =>	
	4주 =>	

||| 대중투쟁운동 |||

반가부장제

●반성폭력

교내 학칙이 제정되고, 교내 성폭력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교내 성폭력 학칙을 학우들에게 알려나가면서 각 단대, 과 학생회에 성폭력 학칙을 첨부할 것을 건의 드릴 것이며 학우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조사를 통한 성교육을 시기 적절하게 진행하여 성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생회, 단대 학생회 성폭력 학칙 제정 건의

☞비밀의 우편함 설치(각 단대 마다)

<반성폭력 1년 나기>

예전에 비해 우리는 성에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어진 성에 노출이 되어 성이 상품화되고 농담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선배들이나 동기들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오는 음담패설에 기분이 나쁘지만 말장난으로 치부해 버리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폭력이 무엇이나?"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강간을 떠올립니다. 강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놈들은 크게 한 번 혼이 나야해'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흔히들 강간보다는 수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학 내에서도 MT 장소에서나 자취집, 하숙집 등지에서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많이 공론화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 혹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과도하게 했나보지 뭐' 등입니다. 또한 사건 자체에 대한 담론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론화 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중·3중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년 전 어느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자취 집에서 다 같이 자는 도중 신입생 남학우가 자고 있던 1년 선배 여학우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사건이 공론화 되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대부분 남학우들은 '1학년 새내기 인생 망칠 일 있느냐', '대충 좋은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비상대책위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질 유형·무형의 비난과 수군거림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성폭력 당했던 여자'라는 꼬리표를 감수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신분과 함께 공론화한 결과는 바로 '남의 인생 망칠 일 있느냐'라는 동기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성폭력을 노출이 되어있어도 자신의 일이 아닌 줄 알고, 자신의 직접 겪어도 사람들의 인식 그 동안 우리가 받아온 교육에 의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음담패설로 기분이 나빠할 여학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거기에 자신의 성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다시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성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3년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는 것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크게는 학칙개정운동에서 작게는 화장실 신문을 통해서 영남대 2만학우의 성의식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사업 : 학칙 개정운동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구축,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달기

성교육 강좌 청강시 학점 인정제도

일상사업 : 화장실 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기적인 토론평 개최

천마 웹메일을 이용한 정기적인 의식화 진행

시기별 흐름

월	사업
3,4월	모꼬지 자치규약, 학칙개정운동 진행
5월	대동제, 봄농활 자치규약
6월	
7월	여름농활 자치규약
8월	
9월	여성 문화제
10월	
11월	

●호주제 폐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부 및 법무부 등지에서 가장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각종 선전전이나 부모성 함께 쓰기 등의 문화운동은 대중 운동으로 풀어낼 것이다.

☞부모성 함께쓰기 문화운동

●성매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그들과 함께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이 빨리 통과되기위해서, 우리의 할머니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라도 그리고 사과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학내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매번 말로만 하고 그치는 기치촌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닌 주체선정에서 준비 흐름구상까지 그 동안 맥이 끊어졌던 활동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기지촌활동의 활성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봉사활동 진행

6.15 이행

●6.15 3주기 기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자고 2000년 6월15일 외쳤던 그날이 벌써 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민족끼리 얼싸안을 그날을 영원해 봅시다.

☞3주년 기념 십자수 단일기 만들기!(대동제 때 수익사업으로 진행!)

●반미 반전!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전역을 긴장속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이라크의 양민들을 아무런 명분없는 전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전쟁이 끝이 나면 한반도에 또다시 미사일을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저 오만한 나라 미국을 향해 반대의 외침을 질러봅시다.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반팔 셔츠로 바꾸어 드립니다.(행사 때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

●평화,통일의 주역

3천만 여성민중을 모두 여성의 자주성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층 더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 교류에 더욱 앞장서며 작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남북 여성대회를 성사시키고, 육로로 여학 단위 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남북 여성대회성사

☞모꼬지 육로 답사 성사

●주한미군 철수 투쟁

이 나라에 평화를 앞당기고 모든 민중이 편히 잘 수 있도록 편히 생활 할 수 있도록 민중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젠 주한 미군을 반드시 이젠 철수 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젠 효순이 미선이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주한미군에 의해서 희생된 모든 억울한 넋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효순이 미선이 1주기 기념 사업진행

☞SOFA전면 재정 운동진행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교내 비정규직 여성들..

동네 어머니 같은,, 아니 할머니 같은 분들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의 온갖 힘든 일 다하시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항의 한번 못해보고 해고당하기가 일쑤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나서서 그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그들의 고충을 듣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즐기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의식화

☞5월8일 어버이날 기념 어울림 마당

☞휴식공간 확보

●시골의 어머니들..

농사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일로 허리가 휘어지시는 우리네의 어머니들.. 농가 부채다 수입 농산물개방이다 어머님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4계절 농활을 통해서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님들을 알아가지만, 이제 제대로 어머니들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4계절 농활 여성농민반, 아동반 에 대한 계획서 철저히 제출!! 또한 물론 함께 참여는 필수

학원자주화

교양과정은 학우들의 의견한번 묻지 않고 개편되더니 등록금도 학우들과의 결정과는 다르게 차등 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족 영대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교육개방 역시 쏠살갈

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학원교육의 3주체의 하나인 학생의 권리가 너무나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줄 알았더니 학생들의 수업권마저도 이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등록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본관과 열심히 투쟁을 전개 해나가겠으며 학생이 학원 내에 가장 큰 주체로 서 나가도록 대학본부와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성강좌증설

☞성폭력 상담실의 전문화

국보법 철폐 · 이적규정 철폐

이 시대에 더 이상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국가 보안법과 아직도 양산되고 있는 학내의 대표자들의 수배문제.. 더 이상은 간과해서도 그냥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고민이 제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철폐의 날- 시내 거리 사진전, 다큐멘터리 상영전

☞그 외 기타 투쟁사업들을 활발히 진행

ⅢⅢ 대중사업 ⅢⅢ

●학우들과의 소통

☞인터넷 활성화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온라인 고스톱으로 정을 쌓아가는 정보화 시대! 학우들과 만나고 학우들을 이해하려면 인터넷을 즐겨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게시판을 빨리 확충할 것입니다.

☞이동 여학생회 "소란"

큰 행사만 있으면 나타나는 이동 여학생회가 아니라. 매주 수요일 학교 곳곳을 누비며 이동 여학생회를 할 것입니다. 늘 학우들이 가판대 앞에서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묻어나는 '소란' 우리 함께해여!

☞ 화장실 신문 '뒷간토크'

첫째, 셋째주 월요일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다! 왜? 뒷간토크가 바뀌는 날이니까!!! 학우들이 보고싶고 듣고 싶은 뒷간토크로 다가가겠습니다,

☞ 설문사업

학우들과 함께하기 위해 한 손에 설문지 들고 한 손에 강냉이 들고 학우님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 여학우 페스티벌!!!

여대생들만을 위한 축제는 어데 없나? 이제 총여학생회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문화제+취업페스티벌+전여대회를 한데 묶어 묶어서 여학우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문화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복지사업

☞ 여학우 휴게실에서의 변화

- 관리 장학생도입!
- 휴게실 안 침대대신 온돌방으로 교체
- 셀프 비디오팽 설치!

☞ 화장실에서의 변화

- 향기나는 화장실 방향제 설치
- 휴지, 비누 구비
- 선반 설치
- 파우더룸 설치

● 여학우 새날열기

총여학생회만의 사업은 저리 가라! 모든 여학우가 함께 만들어가고, 진정으로 여학우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여학우 새내기 새로배움터

제대로 된 사업의 정착화를 만들어 나가고 좀더 새로운 새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여학단위와 함께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 시기별 사업의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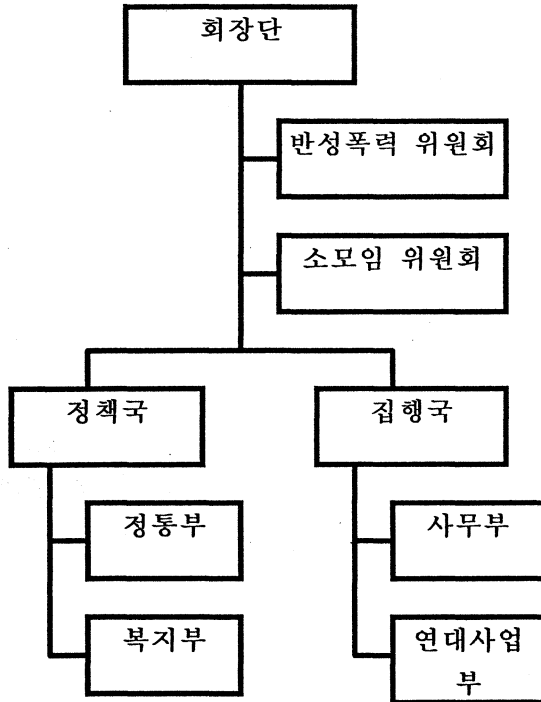
시기		여학 사업	전체 사업
3,4월	학내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선전전 해오름식 보궐선거 총노선 수립, 의견수립기간 과별 간담회진행, 소모임사업	개강,입학식 해오름식 학원자주화투쟁 중간고사 천마체전
	학외	T.K, H 대의원대회,	
5월	학내	대동제, 봄농활, 여성영화제	대동제, 봄농활
	학외	5.18 민주항쟁, H, T.K출범식 , 전여대협 출범식,	
6,7월	학내	여름농활, 여학단위 일꾼대회, 기 지촌활동	기말고사 여름 농활
	학외	6.15 통일축전 , 일꾼학교	
8월	학내	개강준비 사업	개강
	학외	8.15 범민족대회	
9월	학내	여학우 페스티벌	천마체전 가을대동제
	학외		
10월	학내		학술제
	학외		
11월	학내	선거	선거
	학외		

*기타 일정들을 세부적 기입!

- 화장실 신문 : 격주로 실시
- 설문조사 : 한달에 한번!
- 대중강좌 : 한 학기에 2번 실시
- 이동여학생회 : 격주로 실시

||| 총여학생회의 체계 및 지위와 역할 |||

<총여학생회 체계>



<지위와 역할>

■ 정책국 ■

● 지위와 역할

총여학생회의 중앙운영위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총여학생회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의 흐름을 잡아나갑니다,

민족영대 9천여학우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서나가는데 있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여성자주와 반미 자주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의견개진운동으로 통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1. 정보통신국

이제는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의 만남보다는 온라인상의 만남이 잦아지고 회의마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하는 인터넷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하는 인터넷 사업을 해야하겠다.

단순히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라 모든 과 그리고 학우들의 메일로 우리의 사업을 풀어내고 만들어가자!

★사업의방도

-홈페이지 구축

무엇보다도 가장시급하다. 5월중으로 완료

-각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한 선전작업

이제 손으로 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온라인이야!!!

-9000여학우들의 메일링 작업을 하자!

2. 복지국

낙후된 화장실 시설, 넓은 학교에 비해 몇 개 되지 않은 휴게실.. 여학우를 문화시설의미 비...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여휴를 전면개선하고 화장실을 가고싶은 향기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공약은 공약이 아닙니다. 1시기 2시기로 나누어 여학우 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학기에 맞추어 여학우 복지요구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여학우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여학우 복지사업 확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방도

●1시기(1학기) -공약사항 중 복지사항 요구와 이행

①여휴전면개선 - 요구 수락 올해 안으로 이행

②화장실 개.보수(종강) - 2004년까지 완공

②여휴관리장학생 요구

●2시기(2학기) - 1학기에 진행된 학우들의 복지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

■ 집행국 ■

●지위와 역할

집행국은 총여학생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일상사업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학우들을 가장먼저 만나는 국이 바로 집행국입니다.

1. 사무부

여러 자치기구들의 활동에 있어서 재정이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원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재정의 주된 부분은 학생회비이며 이 학생회비는 2만 학우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재정을 어떻게 쓰고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이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사무부를 두어서 사무부장이 관할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의 관리 또한 사무부가 맡는 것으로 한다.

사무부의 활동계획

#재정관리

총여학생회에서 사용되는 재정의 대부분은 학우들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회비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다.그렇기에 총여학생회는 재정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생명이다.이에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사무지도

단위여학생회도 물론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아직 기층단위가 튼실하지 않은 부분(여학의 사무부는 대개 저학번이거나 여회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도 있으므로 이에 총여학생회는 중앙의 사무부가 단위의 사무 집행에 있어 지도를 할 계획이다.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융통성있는 예산집행의 근거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진행시 도움 및 지도사업을 병행할 것이다.

#사무집행의 이월사업

지금까지 총여학생회 사업을 이월받아오면서 사무에 관한 이월은 영수증이 전부이다.사업에 따른 예산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실무부분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19대 총여학생회를 위하여 이월사업을 위한 사무집행과정을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다. 파일 저장은 물론이고 문서화된 부분과 실무에서의 애로사항과 주의사항 까지 이월할 계획이다.

#총여학생회 내부관리

총여학생회 내부 각 국별,부서별 사업진행의 조율부터 내부환경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것을 얘기한다.이부분은 집행국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공개

총여학생회는 사업의 예/결산 의 틀을 마련하고 학우들에게 1학기에 1번씩 예결산을 공개 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할것이다.

2. 연대사업부

연대사업부는 현실 정세속에서 사회/대학 내 모순 지점을 극복하기위한 활동을 지역을 민중운동 진영,타학교,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더 강고하게 벌여내기위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연대사업에 대한 요구는 현 우리사회의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순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된다. 현 우리사회의 정세를 통하여 요구되는 임무는 각양각색 다양하다.특히 총여학생회는 여성정세와 관련한 모든모순점들을 여학운동이라는 과정에서 풀어내어야하는 임무가 요구된다.또한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지역내 연대를 통한 민중들에게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연대사업부는 이러한 지역 연대 흐름을 기반으로 여러 부서와 연계를 통해 학내 여학생회 단위의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고,이로부터 벌어지는 실천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치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대사업부의 활동계획

#기층 단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로

그 동안의 총여학생회 연대활동을 보면 뚜렷하게 활동한 흔적이 없다.고작 농활을 진행하는 과정이 전부이다.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중적인 결합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하며,대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연대운동의 기풍을 쇄신하고 현장투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토대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기에 연대사업부는 기층 단위의 연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

#단위 연대와 지역연대와의 사업

-농민 학생 연대 활동

농민학생연대활동에서의 기본적인 사전교양부터 활동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성농민반-이하 여농반- 사전학교'를 진행한다.기존의 여농반 활동의 계획이 부진하여 연대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이를 바탕으로 올해엔 연대차원으로의 활동으로 께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활동

-반성폭력 단체와의 활동

총노선의 내용과 동일